

매 수	첨부자료	사 진	담당자
4	○	추후	정은경(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회장, 부산교대 교수) 051-500-7260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졸속 개발 규탄 성명서 발표

- 새 정부, 학교교육에서 국악이 사라진다 -

□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회장, 단국대 교수 임미선)는 4월 21일(목),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졸속 개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 (일시) 2022. 4. 21.(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용수산 비원점
- (내용)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졸속 개발을 규탄 성명서 발표
- (주최)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

□ 성명서를 통해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의 문제점과 연구책임자의 편향적 시각과 파행적 운영을 알리고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교육부의 부실한 운영 및 관리 행태를 고발한다. 그리고 국악교육 및 국악계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가 정부와 교육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발표한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의 문제점

- 그동안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 용어와 활동을 직접적, 명시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최소한의 국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현재 개정 중인 음악과 교육과정(시안)에서는 국악교육의 정상화, 질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전면 부정되고 있다.
- (성취기준에서 국악 내용 전면 삭제) 현행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악 내용을 총 6개(초·중학교 총합) 성취기준으로 개발하여 최소한 국악교육의 근거를 문서상에 드러내었다. 그러나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이하 시안 개발 연구)에는 국악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성취기준이 단 하나도 없고 참고 및 선택 사항인 성취기준 해설에 끼워 넣기식으로 제시하였다.

- (국악 요소와 개념 삭제) 시안 개발 연구에는 2015 개정에 제시되었던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가 삭제되었다. 이 체계표는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한눈에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를 삭제하는 대신, 수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성취기준 해설’에 나열식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로써 고유한 국악 요소와 개념 체계가 무너지고, 학교 국악교육이 전면 축소될 우려가 있다.

◆ 연구책임자의 편향적 시각과 파행적 운영

- 시안 개발 연구의 문제는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연구인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체육·예술 교과군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이하 기초연구)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이 기초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총 2명)은 시안 개발 연구의 연구책임자와 연구진으로 선정되어 기초연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이 시안 개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 (편향된 시각으로 개발된 교육과정 시안) 연구진의 구성에 있어 기초연구는 서양음악을 전공한 2명(교수 1명, 교사 1명),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의 교수진은 각각 서양음악 전공 4명, 국악 전공 1명이다. 협의진 구성 역시 대부분 서양음악 전공으로 구성하였으며, 국악 전공은 소수에 불과하다. 연구 내용 및 방법의 경우, 기초연구에서는 일부 교수의 특정 연구물을 참고하여 인용하였고,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전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술하였다. 또, 국악에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연구 쟁점을 추출하여 편향적이며 부정적인 의견을 중점적으로 수렴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국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견해로 해석한 문제도 있다. 시안 개발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 (불투명한 개발 과정) 연구책임자는 교육과정 시안 개발 과정의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비공개로 하였으며 국악분야 전문가협회에서도 내용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음악교육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교육학적 맥락의 검증은 위해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하여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연구책임자는 시안 개발 과정에서 전공 분야에 따라 연구 내용 공개에 차별을 두었을 뿐 아니라, 국악교육에 필수적인 요소와 개념 체계에 대한 확인, 검토,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매우 형식적으로, 불투명하게 운영하였다.

◆ 이 모든 문제를 초래한 교육부

- (기초연구,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의 기획 및 운영 부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육부가 기초연구,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의 기획·운영을 부실하게 한 데 있다.

- 교육부는 2021년 4월, 체육·음악·미술 3개 교과를 묶어 교육과정 기초연구를 용역 방식으로 실행하였다. 이 연구는 서로 공통점이 없는 체육, 음악, 미술 교과를 하나의 연구로 통합하여 4천만 원의 적은 용역비로 고작 6개월 동안 수행된, 졸속 연구이다.
- 교육부는 지난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으며, 최종적으로 문제의 기초연구를 수행한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었다. 교육과정 시안 개발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갖은 핑계를 대며 불투명하게 전문가 협의회를 추진하고, 의견 수렴 과정이 적절치 않았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방관하였다. 연구책임자의 불투명성, 절차의 부적절성 등에 문제가 야기되었음에도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방안 또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 (소극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심화시킨 교육부) 국악교육 및 국악학계는 부실한 기초연구와 시안 개발 과정의 문제점이 우려되어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안 개발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국악교육 및 국악학계가 떠들썩하다는 것만 지적하는 등 수수방관하였다. 그 결과, 성취기준에서 국악은 전면 배제되었고,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는 완전 삭제되는 등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이 되었다.
- 국악교육 및 국악학계에서 제기한 주장은 국악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아전인수’ 격의 논쟁이 아니었다. 교육부가 시안 개발 연구 제안요청서에 기술한 “한국인으로서 우리 음악(국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민족적 정서의 공유 및 국악의 세계화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가장 최소한의 요구였다. 만약 교육부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학교 국악교육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직시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국악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발 기획 및 관리 소홀에 책임지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 교육부는 민족문화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지닌 교육과정 개발 연구책임자를 물러나게 하고, 연구책임자는 교수직 사퇴하라!
- 교육부는 졸속적이고 불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 정부는 교육과정 개발을 졸속으로 진행한 교육부를 감사하라!

(사)가야금병창보존회, (사)가야금산조보존연구회 경기지회, 가즌악회, 강릉아리랑 보존회, (사)강태홍가야금산조보존회, 경기가야금앙상블, 경기교사국악교육연구회, 경기예술강사연구모임 예술로스며들,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경북중등음악교과모임, 경북컴퓨터음악교육연구회, (사)경상남도무형문화재 함안화천농악보존회, 경서도민속풍류회,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 고양파주국악예술교육연구회, (사)공연전통예술미래연구원, (주)공연문화예술 '봄', 공주교육대학교 풍물패 졸업생 모임 '풍물가람', 광주교사합창단, 국악교육연구회, 국악그룹 헤이브, 국악그룹 HEXAGON, 국악단 소리바다, 국악방송, 국악실내악단 나빌레라, 국악앙상블 '휴', 국악예술강사연구회 '꿈꾸는 국악나무', 국제전통예술교류협회, 그루터기교사국악단, (사)김병호류가야금산조보존회,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주)나무판코리아, (사)남도민요보존회, (사)노름마치예술단, 놀이마당 '울림',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3호 옥수농악보존회, 대구교사국악관현악단, 대구풍물연합회, 대소리를 찾아서, 대전비나리전수보존회, 대한민국 국악강사협의회, 동신예술단, 문화예술협동조합 예술나무, 백제고취대, (사)백제국악관현악단, 부산교사합창단, 부산초등음악수업연구회, 부산초등합창연합회, 사제동행 풍물동아리 '더풍물', 서울가야금앙상블, 서울대학교 국악과,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서울립국악관현악단, (사)성창순 판소리 보존회, (사)성창순 판소리 보존회 철현금 분과, 세계음악학회, (사)세계판소리협회, 소리꽃가객단, 아동국악교육연구협회, (사)수제천보존회, (사)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시아금교류회, 양금연구회, 역사민속학회, 영남대학교 국악과, 영남대학교 국악전공 교수회, 영송당가곡보존회, 우리소리 바라지, 울산광역시국악관현악단, 울산광역시국악교육연구회,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 윤슬교사국악관현악단, 음악그룹 '더한', 음악그룹 '여음', 음악그룹 'the채움',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일파가야금합주, (사)일통고법보존회, 장덕화가락보존회, 전국교육대학교 국악전공 교수협의회,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 전국음악교과모임,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사)전주대사슴놀이보존회, 전통공연예술원 '판', 전통예술원 '판', 전통예술콘텐츠연구소, 전통음악연구소 '하랑' 전통음악교육연구회, 정소레 韓國音樂學, 정효문화재단, (사)제29호 서도소리보존회 대전지회, 좋은 음악 소리랑, 중앙가야스트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중요무형문화재 가곡전수관, (사)창원국악예술단, 천안교사풍물패 '풍월', 청주민예총 풍물위원회, 충북민예총 풍물위원회, 충청남도 교육청 예술교과연구회, 풍물굿패 '씨알누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한국공연문화학회, 한국국악교육원 대전분원 한울소리회,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한국국악교육학회, 한국국악예술강사연구회, 한국국악치료협회, (사)한국국악학회, (사)한국국악협회, (사)한국국악협회 강원도지회, (사)한국국악협회 경기도지회, (사)한국국악협회 경상남도지회, (사)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 (사)한국국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사)한국국악협회 대구광역시지회, (사)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사)한국국악협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북도지회, (사)한국국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지회, (사)한국농악보존협회, 한국문화과예술학회, (사)한국문화공동체BOK, 한국민요학회, 한국아동국악교육연구협회, 한국예술교육학회, (사)한국예술문화진흥회 대전충남장애인예술협회, 한국음악연구회 風流, (사)한국전통민요협회, (사)한국정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한국전통민요협회 대구1지부, 한국해금앙상블, 한빛풍류, 한새해금연구회, 현대음악앙상블 CMEK, (사)화고 판소리 고법 보존회, DOREMI동요스쿨연구회(총 139개 기관 및 단체, 가나다순)